

윤석열 후보 부동시 군 면제 의혹 규명을 위해 검사 임용(초임 및 재임) 시 신체검사표 등 정보공개청구

- 군입대 신체검사와 검사 임용 신체검사 시 양안 시력 차가 너무 커
- 검찰총장 인사청문절차에서 검사 임용(초임·재임) 시 신체검사표 지속 요구에도 거부로 일관하는 태도 부적절
- 대통령 후보의 병역면제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반드시 보장되어야

윤석열 후보는 1982년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좌·우 양안의 시력 차이가 0.7(좌안 0.8, 우안 0.1)에 이르는 부동시로 군입대를 면제받았다고 밝힌 바 있고,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개인적으로 진행한 신체검사에서 여전히 양안의 시력차가 0.7에 이르는 부동시 상태라고 해명한 바 있다.

하지만 김병주 의원은 어제 대정부질의 과정에서, “과거 군입대 신체검사와 인사청문회 당시 개인적 신체검사 사이 양안의 시력차이가 0.7로 동일한 것은 사실”이나, “제보를 바탕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,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2차례¹⁾의 검사 임용 시 양안 시력차는 각 0.2(1994년 초임) 및 0.3(2002년 재임)에 불과하여 부동시가 아닌 정상시”라는 추가 사실을 공개했다. 또한 “ "군에 갈 때는 부동시가 됐다가, 검사시절 두 번 검사했을 때는 정상이고, 청문회 때 요구한 자료를 보니 부동시가 됐다"고 설명하며, "의학적으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. 부동시는 금세 좋아졌다, 나빠지지 않는다"고 강조했다.

1) 윤석열 후보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1994년과, 퇴직 후 변호사 개업한 뒤 경력검사 임용인 2002년 등 2차례 검사임용 절차를 거친 바 있다.

윤석열 후보 부동산 병역기피 의혹

연도	신체검사	좌 - 우 시력차이	좌안	우안	공개여부
1982년	군입대 신체검사	0.7 (부동시)	0.8	0.1	공개 (감찰총장 인사청문회)
1994년	공무원 채용 신체검사	0.2 -	?	?	미공개
2002년	공무원 채용 신체검사	0.3 (정상수경)	?	?	
2019년	청문회 기간 개인적 신체검사	0.7 (부동시)	1.2	0.5	공개 (오신환 의원 블로그)



3:30:13

480p

그래서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
당시부터 제출을 요구받았으나
아직까지도 제출이 되지 않은

윤석열 후보는 김병주 의원의 위 의혹제기에 “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런 얘기까지 하나.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양당이 다 검증했다.”라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. 하지만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후보자의 병역문제는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. 윤 후보 말처럼 ‘할 게 없어 한다’는 식의 괜한 트집잡기로 매도할 일이 아니다.

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양당이 이미 검증했다라고 했으나 완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. 당시 윤 후보는 청문위원들의 검사 임용 시 신체검사표 등의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했고, 그 결과 윤석열 후보의 병역면제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.

윤석열 후보의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는 병역면제의 적절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

서 측정된 시력으로서, 후보 본인의 객관적인 시력이 그대로 측정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반드시 공개되었어야 할 자료다.

윤 후보의 병역면제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자료는 제출했어야 한다.

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병역면제에 문제가 없다면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표를 스스로 제출해 주기 바란다. 그런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태도에 비춰봤을 때 윤 후보 스스로 위 자료를 제출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, 국민검증 법률지원단에서는 금일 법무부에 윤 후보의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할 것이다. <끝>